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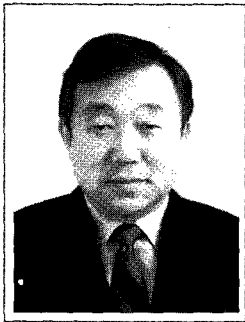


미국 주요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원자력

1990~2002

최연홍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환경정책



서론

원자력의 국민적 이해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시민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유치원에서 초·중·고교·대학으로 발전하면서 과학·기술 문명의 현대 사회에서 원자력의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육 기관의 교실, 실험실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술

만큼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사회 생활에서의 교육이다. 성인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국가·국제 사회의 사건들이 보도되는 일간지를 읽으면서 살아간다. 라디오·TV 매체에서도 세상사를 알게 된다.

이 글은 우리 나라 주요 일간지들이 원자력에 관한 사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답을 하려고 한다.

원자력은 원자(Atom)의 힘이다. 원자의 힘은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탄의 힘으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일본의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이 일본에게 더 이상 전쟁을 지탱할 힘을 파괴했다.

그 후 원자력은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전력을 의미했고, 사람들의 오장육부를 투시할 수 있는 X레이를 의미했고, 지구의 나이, 우주의 생성을 찾아내는 몇 백만년의 투시력

을 의미했다. 원자력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시작해 평화적인 의미의 에너지, 의학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나라 일간지의 사설은 원자력의 다양한 의미를 어떻게 서술하며, 해설하며, 논평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일은 사설이 독자(시민)에게 원자력의 이해를 얼마나 돕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일이기도 하다.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들이 향유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태도·지식·평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들이 구체적인 원자력 관련 사건을 보는 지성적 시각이 또한 중요하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원자력에 관한 기사와 사설은 독자(시민)들을 알게 모르게 교육시킨다. 정보를 전달하면서 글쓴이의 가치 판단이 전달된다.

이 글은 우리 나라 주요 일간지 사설들과 미국의 주요 일간지 사설들이 원자력의 다양한 사건을 어떻게 사설에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비교·분석하려 한다.

두 나라 일간지 논설위원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해설하고, 논평하고 있는가를 비교함은 재미있지만 비교 분석 없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의 일간지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를 선정하였으며 미국의 일간지로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을 선정하였다.

서울의 일간지들은 서울에서 간행되고 있지만 전국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미국의 일간지는 간행되고 있는 도시와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전국지를 표방하고 나온 <USA Today> 이외에는 전국지라고 할 만한 일간지는 없다. 다시 말하면 <뉴욕 타임즈>는 뉴욕과 그 주변 지역,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과 주변 지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로스앤젤레스와 주변 지역을 '고객'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지로서 전국지를 표방하고 나온 일간지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평판이나 영향력은 전국지로서 손색

이 없다.

한국은 미국의 작은 주가 갖고 있는 면적을 갖고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목포까지, 제주까지 일일 생활권 속에 있고, 중앙집권적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지방지가 성장하지 못했고, 좋은 평판이나 영향력을 구사하는 지방지가 아직 없다.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보수적이고 <한겨레>는 진보적이라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적이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수적이라는 일반적인 평을 듣고 있으며 경제지는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현상 지지나 현상 변화나로 나눌 수 있지만 시대에 따라 나눔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면 존 케네디는 1960년대 진보적인 대통령의 평을 받았지만 오늘의 기준에서 보면 보수적이기이다. <한겨레>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용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그 전에는 진보적이라는 평을 들은 것도 시대에 따라 보수·진보의 나눔이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여덟 개 일간지는 두 나라의 지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사실 내용 분석을 시도함은 원자력의 국민적 이해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일간지는 하루하루의 국내외 사

건을 보고하고 논평하는 언어 매체로 독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기업이다. 후진국이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일간지를 정부가 운영하거나, 어용으로 만들어 정부의 대 국민 홍보 수단이 된다.

한국의 일간지는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밖에 나와 있고 공정하게 사건을 보도하고 논평한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최고로 향유하고 있는 나라로 자유롭게 기사를 쓰고 해설하고 논평하는 나라이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논설위원들이 매일 평균 3개의 사실을 게재하고 있다.

사실은 익명으로 발표되며 그 신문의 사건을 서술하고, 해설하고, 논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은 그 신문의 지성을 대표하고 있다. 사실이 없으면 그것은 신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은 그 신문의 정신적 초석이기 때문이다. 일간지의 사회관·국가관·세계관이 모두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색깔로 표현되기도 한다. 보수적이라던가, 진보적이라던가, 급진적이라는 표현은 그 신문의 사실이 보수적이라던가, 진보적이라던가, 급진적이라는 표현이다.

사실과 기사가 언제나 같은 색깔이 아닐 때가 있다. 그 때에도 사실의 논조는 그 신문을 대표하는 바탕색이 된다.

The Los Angeles Times

• 1990년

7월에 워싱턴주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살고 있는 13,500명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정보를 서술하며 정직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16일자 사설은 요청하고 있다.

12월에는 원자로의 새로운 디자인·경제성·효율성이 발전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관해서는 발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논평을 10일자 사설에 담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관해서 아직 해결책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1991년

11개의 원자력에 관한 사설이 발표되었다. 7월에 미국과 일본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고온가스냉각 원자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7일자 사설이 나왔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 구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며 그가 권좌에 앉아 있음 그 자체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0월에는 3일자 사설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안전이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며 생명이 다 된 원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재인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 에너지 노후화에 관한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20일자 사설은 핵과학, 기술의 이전을 심각하게 논의하며 이라크의 무기 매체가 기술 이전의 규제·통제가 없는 데서 가능한 것임을 경고하며 기술 이전·유출의 강력한 통제를 제안하고 있다.

11월에는 3일자 사설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동유럽 국가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를 논의하며 유엔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 강력한 규제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자 사설은 부시의 에너지 정책을 거부하는 의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며 원전의 표준화와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10일자 사설은 북한의 핵에 관한 논쟁을 서술하고 있으며 북한이 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하도록 최선의 압력을 미국과 국제 사회가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8일자 사설은 원전이 다시 에너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원전 인가 절차의 과정을 개혁하며 그 개혁은 단순하고 기본적이어야 하며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는 한 푼의 비용 부담이 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소비자·사용자 부담을 뜻하고 있다.

23일자 사설은 다시 평양이 국제 사회의 긴장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미국·유엔·IAEA의 역할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2월에는 2일자 사설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찾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 뒤뜰에는 안돼요!” 하는 NIMBY 현상을 서술, 해석하며 해법 찾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최대의 걸림돌임을 밝히고 있다.

11일자 사설은 제임스 왓킨스 동자부 장관이 조지아주 사반나 강 원전의 K원자로 재가동 선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트리튬 생산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성 가스가 나오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 1992년

11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1월 14일자 사설은 러시아로부터 핵 과학 기술이 불량 국가인 이란·이라크로 유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유출, 이전이 파괴적이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 11일자 사설은 또한 중국의 이란에로의 미사일 판매와 핵 기술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



을 급하게 막아야 할 국제 사회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월 14일자 사설은 냉전이 끝났는데 미국의 동자부는 아직도 뉴멕시코주 지하 동굴에 핵무기로부터 나온 플루토늄을 저장하려 함을 막은 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31일자 사설 또한 동자부가 동자부와 계약 사업을 하고 있는 록웰 인터내셔널 회사의 록키후켈 핵무기 제조 공장과의 소송에 동자부가 재정적인 자원을 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

5월 10일자 사설은 북한의 핵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IAEA 사찰을 미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이 받아들여도 할 것과 군사적 통제 방안을 찾을 것을 권하고 있다.

11일자 사설은 우크라이나가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키는 위험을 경고하며 체르노빌의 비극을 잊지 말 것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재가동을 비난하고 있다.

6월 13일자 사설은 미국의 동자부가 남캐롤라이나주의 K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함을 경고하며 트리튬이 앞으로 16년 쓸 정도 있는데 탈냉전 시대를 역류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 핵무기 제조가 금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7월 13일자 사설은 불란서·독일·이태리가 유럽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가장 위험한 발전소를 긴급 수리할 수 있도록 1억달러 투자에 동의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투자가 큰 첫 걸음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8월 10일자 사설은 미국이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핵무기 공장 건설에 도움을 준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핵무기가 불량 국가의 손에서 가공할 만한 것임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9월 7일자 사설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와 15개 공화국 안에 있는 원자력 시설이 만들어 내는 방사성에 오염 물질과 위험이 지구적 위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1월 16일자 사설은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해외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 선박 수송하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며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도 경고하고 있다.

• 1993년

4월 8일 사설은 미국 동자부의 지구 개편에서 핵안전국이 환경·안전·보건국으로 전환한 사실을 서술, 해설하며 핵 시설의 안전도 모와 위험 관리가 핵 시대의 최고 선결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12월 29일 사설은 헤이즐 오리어리 동자부 장관이 만든 동자부의 '비밀의 문화'를 깨는 일련의 정보의 공유 정책 전환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 1994년

2월 7일 사설은 북한이 핵 장난을 계속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IAEA의 사찰, 감독, 규제 역할 강화와 군사 통제를 권고하고 있다.

3월 17일 사설 또한 평양이 핵을 가지고 있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월 2일 사설은 냉전 시대가 끝난 지금 미국 연방 정부가 그 동안 운영했던 연구소의 역할이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4일 사설은 북한이 IAEA 사찰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사태에 안도의 숨을 쉬고 있으며 핵연료봉의 정밀한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10월 24일 사설은 미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핵 물리학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를 레이저 연구의 새 중심지로 만들려는 동자부의 National Ignition Facility를 서술, 해설, 논평하고 있다.

• 1995년

5월 8일 사설은 클린턴-엘친 제7차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대하며 러시아-이란의 핵무기 밀거래를 차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9일 사설도 러시아가 이란의 원전 지원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만들어 둘 것을 제안하면

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어느 것이나 돈이 되는 것이면 핵무기를 포함해 팔아넘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 1996년

11월 26일 사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현실적이며 적절해야 할 것임을 클린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참석을 기하여 당부하고 있다. 중국이 핵 과학 기술을 위협한 나라, 불량 국가들에 팔아 넘기지 않도록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 1997년

7월 14일 사설은 미국의 동자부가 위험한 핵 과학 기술의 세계 확산을 금지하는 노력을 하면서 위험한 우라늄과 플루토늄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사실을 비판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로 동자부의 일을 통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1998년

5월 14일 사설은 인도의 4차, 5차 핵 실험이 세계의 규탄을 받아야 하며, 제재를 받아야 할 중대사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도의 핵 실험이 파키스탄과의 갈등과 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영국·불란서도 핵 실험을 재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6월 27일 사설은 미국 동자부의 신임 빌 리차드슨 장관이 플루토늄

50톤의 관리·통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핵비확산의 중요한 책임과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제안, 강조하고 있다.

8월 13일 사설은 이라크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에 국제사회가 취약함을 지적하며 후세인 정부가 IAEA 사찰에 협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최선의 수단을 동원, 이라크의 핵 무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999년

4월 21일 사설은 중국이 미국의 비밀 정보를 훔치고 있다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의 안보가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 정보가 새나가고 있으며 미국 방문을 하고 있는 중국인의 2퍼센트 정도의 신분·배경 검사를 제안한다.

5월 11일 사설은 중국계 미국 과학자 이원호 박사가 일하고 있었던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의 기밀 문서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주장과 이원호의 스파이 행동에 대한 공화당의 도전에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19일 다시 이원호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 연구소의 기밀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핵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8월 18일 사설 또한 이원호 사건에 관한 논평과 제안을 싣고 있다.

12월 7일 사설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가 다시 가동될 것을 위험하게 논평하며 원자로 사고가 대재난을 가져올 수 있으며 1986년 방사능 유출이 다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의 나라들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논하며 전기 산업의 중흥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2000년

1월 24일 사설은 탈냉전 시대의 과학 예산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며 동자부 연구·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6월 8일 사설은 14년 전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자가 아직도 속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80만명이 그동안 체르노빌 청소로 동원, 희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수 천 명이 사망했고 더 많은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능 피폭이 되었다는 사실을 논평하고 있다.

8월 15일 사설은 이론 물리학 string theory, 수학적 증거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학계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 2001년

5개의 원자력 사설이 게재되었는데 3월 14일 사설은 러시아의 이라크로의 무기 수출, 원전 시설·핵무기 생산 기술 이전에 관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1995년 미국과 러시아 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위험한 무기 수출을 통제할 근거가 그 협정에 있기 때문이다.

5월 8일 사설은 덩 체니 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글로 캘리포니아주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캘리포니아주 연방 건물에서부터 10퍼센트 에너지 절감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덩 체니는 와이오밍 출신 정치인으로 텍사스 유전 사람의 이미지가 강하고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원자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11월 2일 사설은 2월 9일 일본의 어선이 하와이 근해에서 조업 중 미국의 핵잠수함과의 충돌 사건에 관한 글로 그 사고의 경위, 미래 예방을 제안하고 있다.

11월 14일 사설은 미-러 정상 회담이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 목장에서 열리는 기회에 러시아의 이란에로의 기술 이전과 핵무기 감축,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2월 12일 사설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러시아의 이란에로의 원전 기술 이전에 테러리스트 손으로 핵폭탄 기술이 넘어갈 것을 걱정하면서 9.11 테러로 뉴욕시 World

Trade Center와 워싱턴의 Pentagon Building 폭파 이후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nti Ballistic Missile 협약이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2002년

두 개의 사설이 나왔는데 이라크의 위협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난 대응 계획에 관한 글이다. 이라크의 위협은 미국·유엔·IAEA의 사찰로 생화학 무기를 찾아내고 파괴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자로가 가동중인 34개 주에 재난 대비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공급이 너무 단순한 대비책임을 경고하고 있다.

The Washington Post

• 1990년

1990년에는 4개의 원자력 사설이 게재되었는데 에너지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글들이다.

2월 10일 사설은 원자력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 효과와 발전 도상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에 관한 논평을 담고 있다.

3월 23일 사설은 뉴 햄프셔주 시브룩 원전의 가동에 맞추어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

을 강조하고 있다.

8월 2일과 12월 4일 사설은 워싱턴 주의 햄포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 관리, 방사능 누출과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환경적 반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을 수시로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1991년

1991년에는 두 개의 원자력 사설이 나왔는데 4월 23일 사설은 중국이 알제리의 원전 건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논평하며 핵무기 개발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조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8월 3일 사설은 콜로라도주에 있는 록키 후렌 원자력 시설을 재가동하는 계획을 동자부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의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992년

1992년에는 5개의 원자력 사설이 나왔는데 모두 군사적인 관련 글들이다.

5월 8일 사설은 북한의 핵 의혹과 의도를 파악할 것과 북한이 IAEA 핵 사찰을 수용할 것과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핵 의혹을 없애라고 제안하고 있다.

5월 11일 사설은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가 소련의 붕괴로 핵 보유 국가가 되었고, 그에 따른 핵무기의 파괴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

평하고 있다.

6월 2일 사설은 러시아가 인도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인도가 비핵화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23일 사설은 누가 이라크를 도와주고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며 이라크는 미국 이외의 서방 세계로부터 미국 수입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이 기술 이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11일 사설은 이라크와 함께 이란의 무기 수출, 핵무기 기술을 팔고 있는 사실을 서술, 설명하고 있다.

• 1993년

1993년에 5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3월 25일 사설은 북한의 핵비확산협정(NPT) 탈퇴에 따른 비난과 IAEA의 역할이 북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8월 13일 사설은 미사일 핵무기를 통제하는 체제와 규칙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8월 26일 사설은 미국 정치인들도 원자력 에너지, 핵무기에 관해 침묵을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9월 29일 사설은 미국 상원이 더 이상 핵무기 제조를 원치 않기 때문에 Integral Fast Reactor에 관한

법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탈냉전 시대에 맞는 원자력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10월 30일 사설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원자로가 국제 기준에 의하면 터무니 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서술하면서 우크라이나 의회가 그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원전도 위험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 1994년

1994년에 3개의 원자력 사설이 나왔는데 3월 19일 사설은 러시아의 원전이 핵무기 산실이 된 것을 우려하는 글이며 6월 16일 사설은 소련 붕괴에 따른 원자력 시설의 청소에 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10월 12일 사설은 중국이 파키스탄에 원자력 발전 시설을 수출하고 있으며 원전으로부터 NPT 협정에 조인할 것과 남아시아 평화를 해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 1995년

1995년에는 5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한 협상(2월 8일)과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주류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제안(12월 24일)을 싣고 있다.

러시아·중국·파키스탄의 이란에 대한 핵무기 기술의 판매와 러시아·인도·파키스탄·중국 핵비

산화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4월 19일)을 비판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난하기 때문에 핵무기와 기술을 판매하고 있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으며(2월 15일), 중동의 비핵화를 위하여 모든 나라들이 노력해야 할 것과 이스라엘도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월 25일).

• 1996년

1996년에는 7개의 원자력 사설을 싣고 있다. 인도의 핵 실험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경쟁, 중국의 자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1월 18일, 1월 31일자 사설은 주장하며 결국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을 자극해 핵 경쟁을 유발해서 불란서·중국도 핵 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적 실험'을 주장하고 있고(6월 14일), 자국 방어용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 사법부의 결정(6월 11일)을 설명하며 일체의 실험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러시아·중국·불란서·영국과 함께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벨로루시까지 핵 보유 국가가 되어 있는 사실을 공개하며 결국 핵이 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16일).

네바다주의 유카산 화산석 속에 사용후 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신중해야 할 것과 연구

처분장이 아니라 잠정적 처분장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7월 16일).

• 1997년

1997년에는 10개의 원자력 시설이 나왔는데 인도와 파키스탄 정상 회담을 환영하며 남아시아의 평화 구축 필요성 논평(5월 3일)과 인도의 미사일 경쟁의 위협성을 논평하고 있으며(6월 9일), 인도·파키스탄과 함께 불량 국가의 핵 보유(이란·이라크·북한)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7월 6일).

이란의 미사일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이전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대화가 국제 사회의 희망이라고 논평하고 있다(9월 30일, 12월 16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휴전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IAEA 사찰에 협조하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6월 24일).

소련 붕괴로 독립한 벨로루시가 비민주주의적 르 카센코 대통령의 핵무기 파괴 거부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10월 20일), 아직도 러시아의 엘친이 냉전 시대의 핵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미-러 협력의 필요성과 핵무기 도둑과 절도의 위협성이 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5월 30일).

미국 상원이 네바다주 유카산 화산석 속에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영구 처분장 대신에 중간 처분장으로 전환하려는 네바다주의 제안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논평하고 있다(4월 8일).

• 1998년

1998년에 6개의 원자력 시설이 나왔는데 인도와 파키스탄 핵무기 경쟁이 4개나 된다. 클린턴 대통령이 가을에 남아시아를 방문하는 목적이 두 나라의 핵 경쟁과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인도가 1974년 이후 첫 번째 핵 실험을 시도한 것이 파키스탄을 자극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NPT가 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파키스탄과의 무역 규제를 통하여, 그리고 원조를 통하여 무기 경쟁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4월 2일, 5월 13일, 6월 7일, 8월 31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UN IAEA 사찰단과의 알력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8월 28일)은 IAEA 스캇트 리터 검사관이 사임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가 START II 조인을 연기한 처사를 비난하는 12월 27일 사설은 핵무기 감축 조약의 의미를 강조하며 러시아가 이라크와 이란으로 핵무기 밀거래를 중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1999년

1999년에는 15개의 원자력 시설이 게재되었는데 러시아와 중국 핵 실험 금지, 미국 동자부 기구 개편 환경과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 이원호 박사가 로스 알라모스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국가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사건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되었고 사설의 내용이 되었다. 그가 정말 스파이였느냐? 동자부의 트르록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휘파람을 불었고 순식간에 이원호는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중국이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 정보를 훔치고 있다는 소문은 견잡을 수 없었다 연방수사국이 동원되었고 후일 이원호 박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가 받은 피해는 컸다(2월 19일, 5월 26일, 8월 19일, 8월 27일, 9월 26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말이 클린턴 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러시아에게 이 체제를 설명하는 이유에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공격을 예측한 듯 불량 국가들의 핵장난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설명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과 엘친의 경쟁적 핵 보유, 체첸과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요 문제가 되고 있다(1월 21일 9월 19일 11월 8일 12월 13일).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 금지 조

약 조인을 계기로 두 나라의 핵에 대한 성숙도(5월 30일 9월 27일)를 논평하고 있다.

이원호 사건에 따른 동자부 기구 개편으로 국가 안보 행정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한 것(10월 20일)과 핵실험 금지가 불완전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9월 7일, 10월 6일).

• 2000년

2000년에는 모두 4개의 원자력 사실이 나왔는데 클린턴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조인한 협정이 전략적 안전 무기 통제 핵무기 통제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논평과 미국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에는 언급이 없음을 논평하고 있다(6월6일).

러시아의 핵 잠수함 사고로 모든 승무원이 숨진 사건에 대한 논평이 러시아의 비밀 구조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8월19일). 그리고 러시아 언론인이 방사성 폐기물을 태평양에 버리고 있다는 기사를 써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처사에 대한 비난을 싣고 있다(12월4일).

미국 또한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으면서 핵무기 생산에 관련한 사람들의 직업병, 안전의 보상 체제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개선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9월20일).

• 2001년

2001년에는 8개의 원자력 사실이 나왔다. 중국의 대 이라크·파키스탄·시리아·이란 무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와 통상 규제를 논의하며 대만 문제까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과 미국·중국 상해 정상 회담에서 인도-파키스탄의 평화에 중국이 기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월 22일, 9월 5일). 인도·파키스탄이 카쉬미르 분쟁을 해결해가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은 아직 없다고 지적하며 두 나라의 핵 경쟁을 경고하고 있다(7월13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방 정책, 예산,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2월 11일, 6월3일, 6월 4일).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위기가 원자력 발전을 다시 대안으로 떠올리고 있으며 미국 전체 전력의 2090년까지 담당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 해결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5월 12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액체로 된 방사성 폐기물을 쏟아붓고 있다는 기사를 쓴 언론인을 구속한 사태에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설을 쓰고 있다(12월 27일).

• 2002년

2002년에는 9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다. 러시아가 미얀마(버마)에 연구용 10 megawat 원자로 설치를 해준 것과 관련 핵무기 제조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설 속에 중

국이 또한 미얀마를 돕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박해를 받고 있는 권위적인 미얀마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또한 주장하고 있다(1월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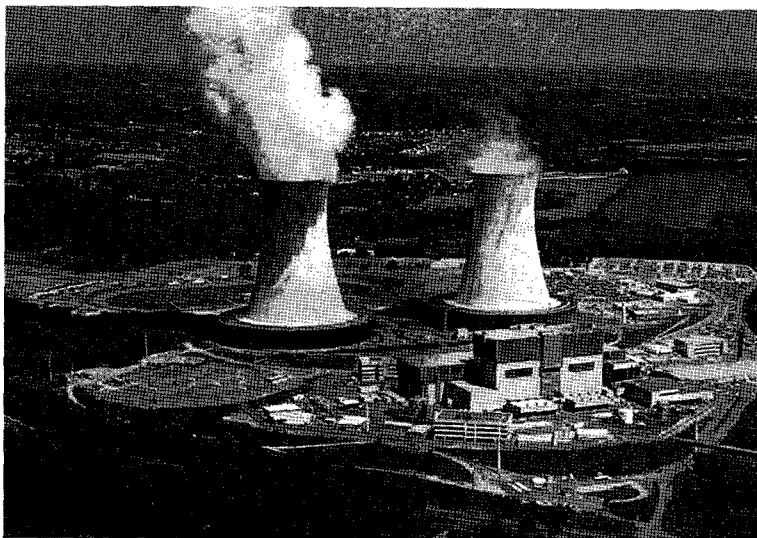
부시-푸틴이 정상 회담에서 탈냉전 시대를 완성하기 위하여 군축 협정을 조인했는데 미 의회가 실천의 증거를(Verification)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백악관 정상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5월 14일), 푸틴이 체첸 내란, 러시아의 민주주의, 이란 지원, NATO 확장에 관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으며(5일 22일), 소련 붕괴에 따른 핵무기 파괴에 러시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조인된 군축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7월 26일, 11월 16일).

부시가 악의 축 발언을 한 후에 유럽 서방 세계가 이란·이라크·북한에 미국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월 20일).

그러나 이라크와의 전쟁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담의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월22일).

북한에 대하여 북한 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일체의 양보를 부시 행정부가 거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2월 31일).

미 의회가 네바다주 유카산 확산



미국의 Rimerick 원전

석 속에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승인한 부시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 처사를 긍정적으로 논평하고 있다(4월 30일).

The Wall Street Journal

• 1990년

1990년에 하나의 원자력 관련 시설이 개재되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점령한 사태에 관하여 논평하고 페르시아만의 긴장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엔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월 15일).

• 1991년

1991년에는 9개의 원자력 관련 시설이 나왔는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만들려 하는 원자탄이 중동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1월 15일), 휴전 협정을 지키지 않으며 유

엔 IAEA 핵사찰단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8월 19일).

소련이 붕괴되면서 15개 공화국으로 분열되면서 핵 시설이 15개 나라로 분산되어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의 지적과 러시아의 책임, 미국의 경제 지원이 비핵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월 5일, 8월 6일), 그리고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의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8월 29일)

미국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영국·프랑스·독일과의 무기 통제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라크와는 그런 조약이 불필요할 것이라는 예측과 이라크와의 전쟁에서는 정밀한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9월 30일).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발전 회사들의 생산적 운영과 함께 지구 온난

화,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원자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3월 7일), 국가 에너지 전략을 논의하며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와 석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5월 30일).

그리고 국방 예산의 삭감이 1930년대 이후 처음 큰 폭으로 되었음을 지적하며 미사일 방어 국방을 주장하고 있다.(10월 2일)

• 1992년

1992년에는 4개의 원자력 관련 시설이 나왔는데 북한의 중거리 스킵 미사일이 이란 바다 아바스 항구에 운송된 사실을 지적하며 IAEA의 역할과 미국 첩보 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 북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3월 17일), 폴 송가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뉴햄프셔주 예비 선거의 승리가 국방비의 삭감과 반핵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2월 20일), 엘 고어의 친환경주의 정강이 환경청과 내무부를 환경주의자들에게 바치게 되며 경제적으로 무지한 정부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비난을 담고 있으며(11월 16일), 일본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선박의 항해가 Green Peace 선박과 충돌한 사건을 서술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11월 19일).

• 1993년

1993년에 2개의 원자력 관련 사

설이 나왔는데 원자력산업의 안전에 관한 언론 보도의 책임을 통탄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운동의 랄프 네이더가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보스니아·소말리아·모가디슈·아이티에서 크게 도전받고 있으며 국방 정책이 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0월 19일).

• 1994년

1994년에 2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우려되는 인도-파키스탄의 핵 갈등을 보도하면서 파키스탄이 인도의 원전을 폭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설은 또한 인도의 1984년 파키스탄의 핵 연구실을 폭파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고(4월 18일), 다른 하나는 클린턴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며 미래 NATO의 확장과 핵무기의 감축 및 비확화에 서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12월 16일).

• 1995년

1995년에는 3개의 원자력 관련 설이 나왔다.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이나고 묻고 있고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어서 꿈을 깨라고 요청하고 있고 KEDO는 북한에게 바치는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설은 또한 북한이 남한을 존경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3월 30

일).

두 개의 사설은 방사성 폐기물 관련 글인데 의회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찾는 일과 청소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요청과 매년 34개 주에 있는 109개의 원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2000톤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갖는 환경적 가치를 지적하고 있으며(3월 16일), 콜로라도주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13마일 밖의 콜로라도강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6월 2일).

• 1996년

1996년에 하나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인도·파키스탄이 사실상 핵 확산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탄하고 있다(3월 13일).

• 1997년

1997년에 4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찾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설은 모하비 사막이 미국 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사설을 상기시키며 폐기물 처분장을 찾아가는 환경 영향 평가도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논평하고 있다(5월 15일).

원자력산업에 도전하는 시에라 클럽을 이상주의적 환경 단체로 비판하는 사설이 있다(5월 13일).

불란서에서 이란으로,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중국에서 이란으로 핵 무기 개발 기술이 넘어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10월 1일), 새로운 시대의 무기 통제는 위험한 기술 이전을 막는 것이고, 경제 교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0월 29일).

• 1998년

1998년에 9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경쟁에 깊은 우려를 보이고 핵비확산을 위한 핵실험금지조약 조인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5월 13일, 5월 20일).

북한의 핵이 3개의 사설 속에 나타났다는데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무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8월 21일)과 평양이 1994년 제네바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9월 1일), 대포동 발사로 인한 중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으로 일본을 자극하고 있으며, 북한은 군사적이 아닌 '과학적 실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9월 10일).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또한 지적하고 있다(3월 13일).

독일 슈뢰더 수상이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을



포기해야 하는 환경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에너지 세금을 높여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독일 정부가 정말 원전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8월 26일, 10월 22일).

클린턴-엘친 정상 회담에서 핵무기 감축을 담은 START II 협약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하락하는 경제를 우려하고 있다(9월 1일).

중국이 이란으로 무기 수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경제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무기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월 13일).

• 1999년

1999년에 10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발표되었다. 북한의 핵, 대포동 미사일에 관한 사실이 6개가 되는데 북한의 핵 협박에 미국의 리더십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금창리가 의혹을 증폭하고 있으며, 남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서해 교전에 속수무책이며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평양의 공갈·협박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1월 4일, 3월 22일, 6월 18일, 7월 14일, 9월 14일, 9월 23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유도탄 발사로 일본이 자위적인 의미에서 국방력 강화와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3월 11일).

미국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가 러

시아·중국의 거부 반응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논평과 엘친과 장쩌민이 미국에 사실상 도전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고, 대만과 이스라엘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월 4일, 3월 19일, 6월 7일, 12월 14일).

• 2000년

2000년에 8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다.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에 관한 사실이 4편이 되는데 부시의 선거 공약으로부터 불량 국가들의 위협, 북한의 미사일이 알래스카와 오키나와에 도달할 수 있는 사실과 공중 레이저와 미사일을 떨어트릴 수 있는 오늘의 과학을 논평하고 있다(2월 15일, 5월 25일, 9월 7일, 11월 22일).

이원호 스파이 사건에 클린턴 정부의 유화적인 대 중국 정책의 곤혹을 주의깊게 내다보고 있다(9월 19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부시의 에너지 정책이 공급 위주의 정책이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고어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부시는 원전의 유지·강화를, 고어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설명하고 있다(10월 23일).

빌 리처드슨 미국 동자부 장관의 미국 우라늄농축회사(USEC)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와 동자부의 개편을 탈냉전 시대의 변화로 논평하고 있으며(6월 28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주 탐험, 개발의 공동 협력, 우주를 지나친 군사적·민간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비엔나 협약 조인을 긍정적으로 논평하고 있다(11월 22일).

• 2001년

2001년에 14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에 발표되었다. 부시의 에너지 정책, 특히 원전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정책이나 반핵과학자 단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우라늄 소멸에 관한 주장이나 자연자원보존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1월 19일, 3월 3일, 3월 11일, 4월 11일, 4월 26일, 5월 18일, 5월 30일). 사실은 부시의 에너지 정책, 원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위기와 전기 회사들에 대한 비규제, 회계 부정 사건을 일으킨 Enron사 일련의 사건들이 에너지 정책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2월 19일).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에 관한 러시아·중국의 도전에 부딪혀 Anti-Ballistic Missile 조약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시-푸틴의 정상 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실이 나와 있으며(10월 23일, 12월 6일),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보호(3월 16일)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빈 라덴에 맞서 미국과 파키스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두 나라의 협력이 미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관계를 곤혹스럽게 할 미래 예측을 논의하고 있으며(9월 21일), “안스락스 전쟁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빈 라덴의 연결 고리 가능성을 또한 논의하고 있다(9월 18일).

이라크에 대한 유엔 경제 재제가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사담 후세인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월 5일).

• 2002년

2002년에 25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게재되었다 북한의 핵에 관련된 사설 속에는 ‘악의 축’에 주는 뇌물이 필요 없다고 보며, 북한의 핵이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에게로 핵무기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미국·일본·한국의 강력한 공동 대처를 논의하며 KEDO 사업과 중유 공급의 중단을 중단하며 더 이상의 당근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일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다음의 위험 인물이라는 사실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이상적인 북한 유화 정책, 유엔 안보리 대처, IAEA 사찰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6월 12일, 6월

24일, 8월 5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4일, 11월 12일, 12월 30일).

북한의 예멘에 대한 스커드 미사일 수출이 빈 라덴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11월 12일).

미국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로 떠오른 네바다주 유카산에 대한 논의와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원전을 지지하고 있다. 의회가 네바다주가 아닌 부시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폐기물 운반 과정에 테러리스트 접근을 봉쇄하는 방법을 마련할 점을 제안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와 기구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다(2월 25일, 4월 29일).

에너지와 대기 오염, CO₂ 생산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의 주장을 또한 비판하고 있다(5월 29일, 10월 17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비난하는 사설들 속에는 언제나 IAEA의 사찰, 생화학 무기, 사담 후세인에게 최후 통첩을 알려서 압박하라는 강경한 제안이 들어있다(3월 8일, 9월 15일, 11월 22일, 12월 6일, 12월 19일).

미국·러시아·불란서·인도·일본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상업용 재처리가 원자탄을 만드는 플루토늄 생산으로 이어지

는 현상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으며(10월 2일), 부시-푸틴 정상 회담에서 핵무기 감축 전략과 미국의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을 논의하고 있고(5월 14일), 러시아의 ‘악의 축’ 나라에로의 핵무기 수출을 논의하고 있고(5월 24일),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를 Anti-ballistic missile 협약과 연계해서 협상하기를 주문하고 있다(6월 14일).

미국의 핵 자세 평가(US Nuclear Posture Review)가 미국의 안보·테러·전쟁·예방·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을 담고 있다(3월 14일).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사설(1월 8일)과 인도의 핵 야심이 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 국경의 위협으로 전달될 것을 우려하는 사설도 있다(6월 4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즈음하여 비현실적인 이상론의 평화주의자가 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불량 국가를 지원하는 꼴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10월 14일).

The New York Times

• 1990년

1990년에 4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게재되었다. 원자력 발전에

너지 정책의 일부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은 사설(11월 18일)과 원전에 반대하는 메사추세츠 마이클 듀카키스 주지사의 처사가 뉴햄프셔주 시부룩 원전 가동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비평을 담은 사설(3월 12일)이 나왔고,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연방 정부 산하의 핵무기 제조 공장을 여전히 유지하려는 동자부 제임스 왓킨스 장관을 비판하는 사설(2월 26일)과 함께 핵무기 물자와 기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설(8월 20일)이 게재되었다.

• 1991년

1991년에는 3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게재되었다.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로 IAEA의 사찰, 비핵화, 무기 통제를 수용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두 개의 사설이 나왔고(11월 3일, 12월 17일), 서구의 정부들이 러시아의 핵 과학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핵무기 제조의 과학·기술이 테러리스트 나라, 불량 국가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설이 나왔다(12월 22일).

• 1992년

1992년에는 22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게재되었다. 그 중에 5개의 북한 핵 관련 사설이 나왔다.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핵무기가 한

반도로부터 철수되었으며 한국과 미국 군사 훈련이 Team Spirit가 중단된 결정을 또한 긍정적으로 논평하고 있으며 미국의 CIA가 북한을 너무 몰아친다는 비판과 함께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의 핵 감시, IAEA 사찰, 남·북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1월 1일, 1월 7일, 3월 2일, 5월 7일, 8월 21일).

러시아의 핵무기가 리비아로 넘어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그들 영토에 있는 핵무기를 러시아로 보내던가 파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 미·러 군축 회담을 통한 핵무기 감축, 카자흐스탄·벨로루시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냉전 시대보다 핵무기 위험이 산재해 있으며, 위험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으며 부시-엘친 정상 회담에서 탈냉전 시대 군축을 과감하게 시도할 것과 냉전 시대를 끝내는 최후의 대통령으로써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1월 12일, 3월 14일, 3월 18일, 5월 4일, 5월 18일, 5월 30일, 9월 23일, 10월 18일, 12월 15일).

러시아의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제안해서 불량 국가들을 위해 그들의 과학·기술을 팔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12월 14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경쟁, 인도 반도의 위험 증가를 우려하며

러시아·중국의 핵무기 수출을 경고하고 있다(4월 28일).

이라크-이란 전쟁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했던 미국의 과거 잘못을 비판하며 이라크 수출입 은행을 통하여 무기 거래를 했던 과거를 비판하고 있다(6월 23일, 10월 6일).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정이 플루토늄을 양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40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처리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라늄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1월 10일).

미국 정부가 탈냉전 시대 전략 공군 사령부의 역할을 축소하며 핵전쟁 감소, 공군 역할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6월 3일).

미국 롱 아일랜드 원전이 핵연료를 불란서로 운송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핵비확산을 어기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12월 13일).

미국 콜로라도주 록키 후렐 원전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원전의 개인들을 기소했으나 연방 검사들이 기각했음을 비판하고 있다(12월 1일). 원전의 안전을 어긴 사건에서 배심원들을 동정하고 있다.

• 1993년

1993년에 33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게재되었다. 그 가운데 11개의 사설이 북한 핵에 관련된 것이

다.

북한 핵이 1993년 가장 지배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뉴욕시에서 실무, 고위급 북·미 회담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라크과의 비교, 클린턴 새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기대, 미국 CIA의 북한 핵무기 관측, 첩보 체계 강화, 경제 제재, 클린턴-김영삼 정상 회담, 남·북한, 중국·일본과 미국의 공동 노력 등을 제안하고 있다(2월 6일, 3월 12일, 5월 1일, 6월 12일, 6월 26일, 7월 22일, 9월 28일, 10월 20일, 11월 21일, 11월 27일, 12월 28일).

우크라이나·벨로루시의 핵 위험을 지적하며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두 신생국이 핵 무기를 파괴하거나 러시아로 운반을 제안하고 있으며 핵비확산 조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월 11일, 2월 8일, 4월 15일, 6월 21일, 10월 26일).

핵실험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몇 개의 사설이 주장하고 있다. 냉전 시대가 끝났는데 아직도 핵실험을 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비난한다. 지하 실험을 시도하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한된 실험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중국의 핵 실험을 계기로 모든 나라들이 왜 핵 실험을 해야 하는가 묻고 있을 때 클린턴이 다른 나라가 핵 실험을 하면 미국도 핵

실험을 개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다. 미테랑 블란서 대통령도 중국의 핵 실험을 비난하며 핵 국가들이 현명하고 냉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월 6일, 5월 25일, 6월 24일, 7월 7일, 10월 9일).

이라크·이란·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통제할 수 있도록 IAEA가 책임있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기 수출·입, 군사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첩보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고, 예산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월 3일, 2월 15일, 4월 19일, 7월 10일).

인도·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러시아·중국·미국의 핵 과학·기술도 통제되어야 하고, 남아시아가 비핵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8월 7일, 9월 28일).

러시아가 지금까지 방어용 핵무기만 보유한다고 하다가 공격용 핵무기로 전환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핵 실험이 러시아의 새로운 핵 정책을 유도했다고 보며 브레즈네프가 러시아가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고 천명했던 사실과 미국은 전략 무기 감축 조약으로부터 핵무기 90% 제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벨로루시가 또한 그렇게 하기를 바라

고 있다(11월 6일).

남아프리카가 핵 개발 후 핵을 금지한 최초의 나라라고 논평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하며 세계 평화가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논평한다(3월 27일).

뉴욕 쿠오모 주지사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환경 신탁금을 제안하고 주의회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처사를 논평하고 있으며, 미래 남 캐롤라이나주의 처분장이 폐쇄됐을 때를 대비해서 주의회가 뉴욕의 처분장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방사성 폐기물도 쌓여가며, 병원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6월 25일, 7월 10일).

국방부의 차관보 자리에 임명된 할퍼린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핵무기 감축에 과감했던 진보적인 전력이 나와 그를 곤혹하게 하고 있지만 공정한 인사 청문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다. 그의 자리는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평화 유지' 차관보인 것을 인식하고, 그가 평소에 평화주의자인 것이 그의 인준에 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11월 18일).

콜로라도주 록히우렛 핵무기 공장이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공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심



원들의 주장을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사법부·의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0월 1일).

• 1994년

1994년에는 24개의 원자력 시설이 개재되었다. 그 가운데 9개의 시설이 북한의 핵을 둘러싼 갈등과 제네바 협약의 성공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벼랑끝' 외교, 의혹 증폭, '다루기 어려운 나라', '어려운 협상' 대처, 한반도의 KEDO 수립, 비핵화, 미국 핵무기 철수, 한·미 연합 훈련의 포기 등이 계속해서 논의되었다(1월 8일, 2월 11일, 2월 17일, 3월 13일, 4월 1일, 1월 22일, 6월 4일, 8월 16일, 10월 19일).

제네바 회담에서 열리는 핵실험 금지에 미국과 러시아는 동조하고 있는데 영국·불란서·중국은 미루려 하고 있고 그 중 중국이 가장 큰 문제라고 논평하고 있으며 비핵 국가들에 대한 예의를 잃고 있으며 그들이 이 지구를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7월 25일).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플루토늄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실이 미·러 정상 회담에서 촉구되고 있고, 핵무기 체제의 가속화·구체화가 논의되고 있고, 중국·영국·불란서·인도·파키스탄도 미·러가 정한 핵무기 감축, 플루토늄의 안전 관리, 결국 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1월 2일, 3월 19일, 7월 25일, 8월 16일, 9월 26일).

일본과 유럽 나라들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사업, 운반이 플루토늄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재처리의 전면 중단을 강조하고 있다. 우라늄이 가용한 자원으로 있는데 왜 재처리가 필요한가 묻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양을 줄이려는 의도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플루토늄의 위험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2월 23일, 12월 16일).

우크라이나의 핵비확산 조약 가입, 핵실험금지 조약, 군사 목적을 위한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클린턴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12월 8일), 중국의 핵을 견제하고 비핵화로 끌고 가기 위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을 미국이 지원해야 하며 중국의 인권도 자유 민주주의 세계 수준으로 끌어당기기를 기대하는 사실도 나왔다(12월 20일).

이라크·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비둘기' 접근과 '매' 접근이 있는데 '비둘기'적인 경제 체제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1월 22일).

미국의 동자부 헤즐 오리어리 장관이 1940년대~1970년대 방사능 실험 정보 자료를 모두 공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험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핵의학

과 방사능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다(1월 24일).

미국의 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 이전되고 있는 사실이 외교 통상 차원에서 안보가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월 29일).

미국의 테네시 계곡 개발청이 원전을 폐쇄하고 대체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논평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원전을 다시 찾게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12월 15일).

뉴욕주 의회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찾는 일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실이 원전의 미래, 핵 연구, 병원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7월 6일).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방출하고 있다고 논평하면서 지하수, 지표수 오염, 상황의 조사, 점검이 필요하며 환경 단체의 아우성을 경청해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다(11월 24일).

페리 미 국방 장관의 생·화학전 생각이 역사를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보인다(3월 24일).

• 1995년

1995년에는 13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다. 클린턴 대통령의 연두 교서가 이 세상을 비핵화로 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핵실험이 역사의 배반이라고 논평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불란서가 남태평양에서 지하 핵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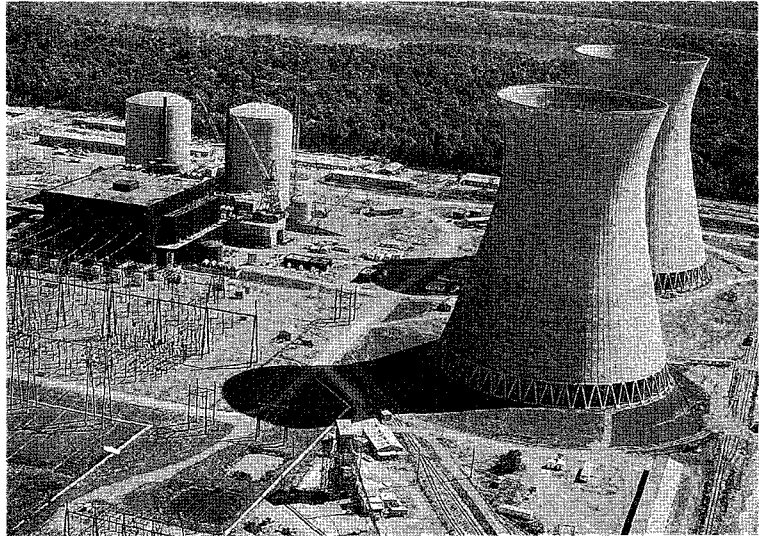
험을 할 계획을 비난하고 있으며 아무리 작은, 수비적 실험도 비핵화를 배반, 역사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클린턴-엘친 모스크바 정상 회담이 레이건-고르바초프 아이슬란드 정상 회담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1월 28일, 4월 17일, 5월 7일, 5월 11일, 5월 12일, 6월 12일, 8월 3일, 8월 14일).

북한의 경수로 2기 건설이 한국식 경수로가 된 것을 북한이 반대한다는 사실에 대한 논평과 남한과 북한의 화해, 정상화로 가는 길에 북한의 반대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3월 23일).

미국 페리 국방 장관이 인도·파키스탄을 방문하는 길에 미국이 두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핵 경쟁 저지를 목표로 중국·러시아도 함께 남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다(1월 13일).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으로 원자력 기술을 수출을 하고 있으나 이란은 충분한 유전으로 원전이 필요치 않으며, 북한은 핵비확산조약에 영구히 가입해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월 6일).

클린턴 또한 미국의 첨단 과학, 원자력 기술이 불량 국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0월 7일).



미국의 Bellefonte 원전

중국이 원자력 기술을 불량 국가에 팔고 있다고 논평하며 미국·러시아·중국이 공동으로 비핵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다(7월 2일).

• 1996년

1996년에는 9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발표되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원자력 기술 유출, 핵무기 개발을 돕고 있는 현상에 대해 미국이 무역 제재를 통해 중국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중국이 '평화적 목적'으로 핵 실험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마침내 마지막 지하 실험 다음의 실험을 일단 정지한 사실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다(2월 9일, 3월 28일).

핵 실험 금지에 관한 사실이 미·러 정상 회담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불란

서·러시아·중국이 모범을 보이고 다른 핵 보유국인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범을 배워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다(4월 23일, 6월 7일, 6월 22일, 7월 31일).

쿠바의 원전 안전이 불안하다고 기사를 쓴 쿠바 언론인이 박해를 받고 망명객이 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에서 원전의 안전성이 위태롭다고 논평하고 있다(5월 20일).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화가 가능할 것인가, 핵연료 서비스가 폐기물의 청소비로 10억달러를 계산하고 있는데 비용이 결국 문제가 된다고 논평하고 있다(8월 26일).

러시아의 핵무기 해체가 다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성의 통제, 안전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12월



11일).

• 1997년

1997년에는 6편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다.

헬싱키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 회담에서 두 나라의 핵무기 감축, NATO의 동유럽 국가 가입으로 확대할 것과 러시아의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고 있으며 클린턴이 러시아의 개혁을 도와야 하고, 엘친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문하고 있다(3월 20일, 3월 22일).

중국이 핵 기술을 이란·이라크·인도·파키스탄에 무모하게 팔아먹고 있고, 이란·이라크의 테러리스트 연결과 커디쉬족의 대량 살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돈을 벌기 위해 분별없는 무기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4월 27일, 9월 1일, 10월 3일).

불란서 또한 불량 국가들에게 무기 수출을 자행하고 있고, 불란서 또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월 1일).

미국은 탈냉전 시대에 미국의 안보라는 이름 밑에 더 파괴적인 핵폭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8월 24일).

• 1998년

1998년에 12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발표되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1000기의 핵탄두를 해체했지만 아

직도 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상태로 근처의 창고에 들어있고 이것들은 이라크·리비아 등의 불량 국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계속 연구할 수 있고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3월 12일, 9월 27일).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논평한다(3월 29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경쟁이 위험할 수 있으며 인도의 지하 핵 실험이 비핵 국가들을 또한 자극할 수 있어서 비핵화를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난하며 두 국가가 평화적 사용으로부터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4월 25일, 5월 19일, 5월 25일).

중국이 또한 파키스탄의 핵무기 지원을 끊어야 할 것을 클린턴의 중국 방문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6월 7일).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 개발의 야심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핵과 함께 생화학 무기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며 IAEA가 지극히 제한된 통제 장치와 권위를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8월 14일).

방사성 폐기물에 관련된 사실은 미국의 뉴 멕시코주의 염광의 Waste Isolation Pilot Project가 지하수 오염 위협을 제거했고 적절한 폐기물 처분장이라는(5월 15일) 사실과 캐나다는 인디언 땅에 방사

성 폐기물 처분장을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다는 지질학적 사실을 논평하고 있다(8월 15일).

러시아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방출을 보도한 언론인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둔 처사를 비난하는 사설도 있다. 니키티는 러시아 핵 잠수함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북극에 버렸다고 보도했다(8월 22일).

핵 재난을 당했을 때 포타숨을 약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공 교육을 논의하면서 너무 단순한 대처가 아닌가 의아해 하고 있다. 원자료가 녹아내리는 사건에 적어도 포타숨이 대비약이 된다는 정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8월 26일).

• 1999년

1999년에 16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게재되었다. 그 가운데 8개가 중국계 미국 과학자가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중국에 핵 과학, 기술 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소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할 것과 스파이 활동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과 기술 이전의 면밀한 검토와 첨단 기술 이전이 적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다. 이원호 박사가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건은 재판으로 끝났고 이 박사는 여러 기소 요건 중 하나에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핵 연구소를 지휘·감독하는 동

자부의 기구 개편, 상원 청문회도 사설에 담겨 있다(1월 1일, 3월 9일, 3월 30일, 5월 30일, 6월 16일, 6월 28일, 8월 20일, 9월 21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श्미르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인도 공군의 공격으로 전쟁으로 치달고 있고, 핵전쟁으로 갈 것을 경고하고 있다(5월 27일). 파키스탄이 군사 쿠데타가 무샤라프 장군에 의해 주도되었고 비민주적인 정권이 파키스탄-인도 갈등을 무모하게 확대할 수 있는 전망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10월 13일).

일본 도카이무라 핵재처리 공장에서의 사고가 인간 재난에 의해서 일어났고 일본 원전은 러시아 체르노빌 사건이나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다(10월 2일).

이라크의 IAEA 핵사찰 거부와 비협조에 대응한 미국과 유엔의 전략이 궁극적으로 이라크의 무장 해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2월 25일).

1996년 핵실험금지조약에 44개 국가 중 21개국이 조인한 사실을 서술하며 상원이 이를 비준해야 할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에 미국과 러시아 신뢰 구축이 어려워지고 미국의 국가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회가 비

준을 거부하면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의 세금 감면 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9월 5일, 10월 5일, 10월 17일).

러시아의 재전에 핵무기 감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경제 개혁의 조건과 함께 러시아-이란 관계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월 22일).

• 2000년

2000년에 16개의 원자력 관련 사설이 나왔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미-러 정상 회담에 따른 인도-파키스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핵무기 감축과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에 관한 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클린턴의 남아시아 순방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대치를 완화하고, 아시아의 평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두 핵보유국간의 협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1월 5일, 2월 18일, 3월 23일, 5월 19일).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가 미-러 군축 회담과 핵 감축의 큰 그림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러시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anti-ballistic missile 조약을 개정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푸틴이 다시 공산당을 구매하지 않고 중도와 개혁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 관계, 군축과 평화에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정치적 논평도 들어 있다(1월 23일, 2월 17일, 3월 22일, 4월 3일, 4월 15일, 4월 24일, 6월 3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난 지 14년, 다시 원전을 가동하려는 계획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논평하고, 러시아의 원전, 동유럽 원자로의 위험한 운영을 전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5월 14일).

러시아의 핵 잠수함 커스트 참사 상황을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노후화된 120개 핵 잠수함의 위험을 또한 설명하고 있다. 노르웨이 해상에서 커스크 참사 전에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검출이 조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8월 18일).

중국계 핵물리학자 이원호 박사 사건과 기술 이전을 논의한 사설도 있다(9월 28일).

미국 서부의 산불이 뉴 멕시코주의 로스 알라모스 핵 물리학 연구소에 접근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논평이 있고, 안전한 곳으로 모든 연구 시설과 정보가 피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5월 13일).

미국 뉴욕 시민들의 전기 요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40% 상승한 원인을 분석하고 비싼 연료비와 비규제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원전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8월 8일).

• 2001년

2001년에 9개의 원자력 관련 사



설이 나왔는데 부시의 국방 정책, 안보 정책, 에너지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시의 새 군사 정책은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이고 불량 국가들의 미국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체제가 공격 무기가 아니더라도 군축을 역행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논평을 하고 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에 대한 전대미문의 테러리스트 공격이 있는 후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부시와 푸틴 미·러 정상 회담에서도 두 나라가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있다.

미·러 정상 회담은 핵무기 감축 논의와 함께 테러리스트에 공동 대처를 논의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을 1700~2200기로 줄이는 군축 회담을 갖게 된 것을 논의하고 있다(2월 18일, 6월 20일, 8월 15일, 11월 9일, 11월 14일).

부시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공급 중심이고, 에너지 절약이나 자연 환경의 보전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는 것과 원전에 관해서도 안전, 재난 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 환경 영향 평가, 지구 온난화 현상, 환경 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

월 18일, 5월 20일, 5월 29일).

스웨덴이 원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논평하고 2010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며 대체 에너지로 원자력 에너지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스웨덴의 미래 원자력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은 에너지 수요의 5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9월 19일).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이 부시의 에너지 정책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2002년

2002년에 18개의 원자력 관련 사실이 나왔다.

테러리스트들이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이 나오고 뉴욕주에 있는 두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과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인가 절차에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비하는 시설과 관리 체계를 갖도록 제안하고 있다(1월 21일, 11월 17일).

미국 국가 안보부가 새로 생겨나고, 그 기구가 미국 시민들이 원전의 테러리스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8월 16일).

그러면서도 미국이 지나친 핵무기의 강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핵의 불량 국가가 되는 것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부시의 Nuclear Posture Review를 비판한다(3월 12

일).

네바다주의 유카산이 미국의 사용후 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로 대통령이 결정하고 의회가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 논의되고, 그에 따른 폐기물 운반 교통망의 구축, 테러리스트들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운반, 사고의 예방이 논의되었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처분장 건설에 따른 인가 절차가 안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월 9일, 4월 21일, 7월 9일).

클린턴-푸틴의 세인트 피터스버그 정상 회담이 핵 군축, 민주주의, 자유 시장, 생화학 무기 감축, 폐기, 서구화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실들(5월 15일, 5월 23일)이 발표되었고 러시아의 이란과의 위험한 관계, 핵무기의 개발 이슬 이전이 지적되었고 비난을 받고 있다(6월 10일).

북한의 핵 장난이 다시 시작되었고 아랍국들과의 무기 거래, 파키스탄과의 무기 거래, 서해안 교전, 고이즈미-김정일 정상 회담에 바라는 북한의 국제 사회의 주류에로의 진입 희망을 담고 있다(8월 8일, 9월 24일).

일본의 핵 연료 선박 운항이 가져올 수 있는 안전 위험, 테러리스트 공격을 우려하는 글을 담고 있으며 영국의 재처리 공장으로 운반하는 긴 항해를 우려하고 있으며(7월 5

일) 일본의 3대 원자력발전소의 스캔들을 논평하고 있다. 원자로 가동의 중단에 따른 위기 관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9월 21일).

중국의 새 지도자들이 원자력 발전을 경제 발전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군사적 힘의 기초로 삼고 있음을 경계하는 글이 있다(8월 18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유엔 IAEA 핵사찰팀과 고양이와 쥐처럼 지내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의 행태가 위압적이며 국제 사회에서 동지를 잃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9월 18일).

유고슬라비아 벨그라드에 원자탄을 만들만한 정제된 우라늄 100파운드의 안전한 관리를 논의하는 글에서 미국·러시아의 협력을 강조하고 올해 10억 달러, 내 10년에 300억 달러를 투자해 핵무기 해체와 안전한 관리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월 24일).

미국 연방수사국이 알 카에다의 미국 공격을 과대 포장해서 미국인들을 필요 이상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 국가 안보 기구가 위기 관리에 적절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11월 17일).

인도·파키스탄의 핵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두 나라 미국·러시아 정상 회담, 군축 회담과 같은 수준의 정기적 회담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6월 4일).

결론

미국의 주요 일간지 사설은 지난 12년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노력,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가 핵 보유국이 되어 위험이 도처에 산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들 나라에서의 핵무기 해체나 러시아에로의 핵무기 운반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전쟁, 이라크·이란·중동의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 가능성을 또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정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논의하며 해외 운반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우라늄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처리를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일부로 원전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환경주의자들이나 단체들의 이상적 자연 자원 보전이나 환경 보호에 비판적이다. 그러면서도 공급 위주 정책이 아닌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을 격려하고 있다.

미국 동자부의 기구 개편, 인사, 핵물리학의 새로운 동향이 간헐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찾는 연방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네바다주 유카 산맥 화산석 속에 영구 처분장 건설을

추천한 부시 대통령의 결정과 의회의 지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찾기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과학이 아닌 지나친 정치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되고 위하여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원자로의 안전한 운행, 친환경적인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며 폐기물의 안전 수송이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년 원자력은 원자탄으로 대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미국 주요 일간지 사설들은 아직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부르짖고 있다. 1950년대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UN 총회 연설에서 강조하고 있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13년간의 사설들은 증명하고 있다. 쓸쓸하다.

인류 문명은 원자력의 어두운 면을 버리고 밝은 면들을 찾아 발전해야 할텐데 아직도 그 어둠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원자력을 인류 문명 발전의 동력으로 만드는 노력이 앞으로 12년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의 주요 일간지 사설 속에 나타난 원자력은 다음 지면에 발표할 것을 약속한다. ☞